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조가영
이메일	gayeong96@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17

보 도 자 료

아카이브 전문가와의 '전주대담: "필름 상영 여전히 중요하다"'

- : 한국영상자료원 전주국제영화제와 '시네필전주: 게스트 시네필' 섹션의 전주대담 공동 주최
- : 하버드필름아카이브(HFA)의 헤이든 게스트(Haden Guest) 원장과 전주대담을 통해 필름 보존과 상영의 의미 재조명
- : 하버드필름아카이브, 한국영상자료원에 <코야니스카시> 필름 기증



▲ 대담 전경



▲ 대담자 (우측부터 헤이든 게스트, 정민화 큐레이터, 김기호 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지난 4월 29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시네필전주'의 미니 섹션인 '게스트 시네필'(Guest Cinephile)의 일환으로 헤이든 게스트(Haden Guest) 하버드필름아카이브(HFA) 원장과의 전주대담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진행했다. 이 대담은 하버드필름아카이브 소장 실험영화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스탠 브래키지, 1981), <코야니스카시>(갓프레이 레지오, 1983) 2편 상영에 이어 진행됐으며, 영상자료원 정민화 큐레이터, 김기호 연구원 등 영상자료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 하버드필름아카이브의 실험영화 필름 상영과 헤이든 게스트 원장의 작품 소개

이날 대담에 앞서 상영된 작품은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과 <코야니스카시> 2편으로, 모두 35mm 필름으로 상영되었다. 토요일 오전, 대중적이지 않은 실험영화를 상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모여 영화를 관람하였다. 헤이든 게스트 원장은 이 두 작품의 제작 방식과 필름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고,

특히 <코야니스카시>의 독특한 표현방식은 이후 각종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빈번하게 차용되어 역설적으로 작품 자체의 가치가 가려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공개하여 감독의 의도와 작품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아카이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하버드필름아카이브의 컬렉션과 아카이빙 기준 소개

대담은 정민화 큐레이터의 질문과 헤이든 게스트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하버드필름아카이브의 운영 현황과 특성에 대한 질문에 헤이든 게스트 원장은, “하버드필름아카이브는 세계 최대의 영화 관련 연구 라이브러리로서 필름뿐 아니라 다양한 포맷의 관련 자료가 함께 소장되어 있다”며, “이런 다양한 리소스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중요한 의무이며, 따라서 교육과 공유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아카이빙 자료 선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 필름 복원작 상영과 복원 기준에 대한 의견 공유

필름 복원이 영화 문화의 중요한 트렌드이자 국제영화제의 특별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 헤이든 원장은 “영화제들이 과거와 현재의 작품을 균형있게 편성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버드필름아카이브도 세계영상자료원연맹(FIAF)의 일원으로서 필름 복원과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도 덧붙였다.

특히 이날 대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필름 복원 기준과 필름 상영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헤이든 원장은 “필름은 원본의 특질과 경험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필름으로 상영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따라서 복원 과정에서는 충분한 윤리적 고려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복원본의 필름 상영 규격도 원본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호 연구원은 이에 동의하며 “다만 디지털 일변도의 상영 환경에서 관객들이 필름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작품의 성격에 따라 현 시대의 기준과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한 점이 분명 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헤이든 원장은 “원칙과 타협의 균형을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카이브는 필름의 물질적 특성과 경험을 재현, 확산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필름 상영은 음악 라이브 공연과도 같은 의미가 있고 미국은 필름 상영회가 많이 있어 아카이브와 협력, 지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이든 게스트 원장은 이날 상영한 <코야니스카시>의 필름을 영상자료원에 기증할 것을 밝혔고, 이에 김홍준 영상자료원장은 “앞으로도 영화필름의 보존과 복원, 상영 등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코야니스카시> 상영 및 대담 정보 (전주국제영화제):

<https://www.jeonjufest.kr/db/movieView.asp?idx=4968>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 정보 (전주국제영화제):

<https://www.jeonjufest.kr/db/movieView.asp?idx=4971>